

'골목상권 드림축제'로 활기 불어넣는다

전주시, 11월 중순부터 지역 골목상권 7곳서 개최... 18일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위한 신청 접수

전주시가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붕괴 우려에 처한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축제를 연다.

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회복과 제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부터 제2회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9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상점가 9개소 등 총 18곳에서 약 두 달간 진행했던 첫 번째 축제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올해는 약 7곳의 전주시 지역 골목상권에서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펼쳐질 사업대상지 선정에 앞서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전통시장·상점가로 미등록된 20개 이상 상점이 밀집해 있고 조직화된 골목협의체가 있는 골목상권의 상인과 지역주민 등으로 조직된 골목협의체이다. 지난해 1회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골목상권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 시 가점도 부여된다.

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권 밖 골목상권의 발굴 및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돼 이미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후보지 중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7개소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골목상권 협의체는 자율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전주시와 행사수행업체의 컨설팅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상권별 특색에 맞는 상가 할인행사와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한 경품행사, 문화예술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소비촉진 행사를 약 한 달간 상권별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전문성 있고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행사수행업체를

선정해 행사의 구상·기획 및 운영 등 전반 과정을 골목협의체와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김중성 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제2회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상인,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제2회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의 지속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미국 시애틀 워싱턴주 방문단, 전주 찾아

한인회장단, 우범기 시장 예방 교류협력 방안 논의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재외동포들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찾아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전주시는 13일 유영숙(미국명 영브라운) 회장과 이수잔 이사를 비롯한 미국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장단이 전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애틀 워싱턴주 방문단은 지난 5월 전주시와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인회 회장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관광객 접도시인 전주시와 교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청에서 이들을 맞이하고 전주시 현황 등을 소개했다.

또한 시는 전주를 찾은 한인회장단에 세계적인 미디어들이 줄곧 보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문화 도시이자 관광도시 전주를 소개하

고, 미국으로 돌아가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하고 있는 전주를 응원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고국의 문화를 잊은 한인 2세대, 3세대 등 차세대 한인들에게 전주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한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곳 전주는 오백년 역사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전라도의 빛나는 중심지였다"며, "관광객 접도시인 전주에서 추진 중인 조선궁일 프로젝트 및 다양한 축제와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외동포들에게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로,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2021년 기준 약 260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공직자 사명감 갖고 적극 행정 추진해달라"

시, 21일까지 하반기 신규 공무원 맞춤형 교육 실시

우범기 전주시장이 임용을 앞둔 예비 공무원에게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는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7일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올해 하반기 신규 임용자 중 인사발령 예정자 81명을 대상으로 공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직원복무 및 복지 △새물·온나라, 예산, 회계, 보고서 작성법 △공직자치, 청렴 △민원응대 △분리합동 △시정 주요현장 방문 등 기본 행정사무 과정과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 받게 된다.

특히 첫날 특강에서 우범기 시장은 민선8기 시정 철학과 시정목표, 시정방침, 8대 핵심전략 등을 새내기 공무

원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신규 임용자들이 앞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신, 주어진 업무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이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서는 물론 관련 분야의 팀장이 강의에 직접 나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또, 선배 공무원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시는 향후에도 공감소통 멘토링과 상시상담센터, 청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등을 운영해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임용을 앞둔 예비 공무원에게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관주 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생활 시작을 앞둔 신규공무원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신청 접수

시, 지역 기업 생산 상품 발굴·육성 지원

전주시가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우수제품의 품질을 인증해주는 것으로 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 지역 기업에서 생산한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청을 접수한다.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청대상은 전주

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공산품 또는 농·수·축산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상품 주원료의 원산지가 전주시지역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접수기한 내 중소기업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

다.

시는 접수된 기업에 대한 서류 확인 및 사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바이전주 실무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바이전주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바이전주우수상품 인증서가 수여되며, 인증기간은 2년이다. 선정기업은 박람회·전시회 참가, 홍보물 및 시제품 등 제작, 온라인 광고, 제품 홍보 전시회 등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전

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선정해 브랜드 마케팅과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현재는 식품류와 생활용품·의류, 한지·지류, 전기전자·환경 분야의 32개사가 43개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바이전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바이전주 인증업체 신규 선정과 함께 인증기간 2년이 만료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지정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현명한 자산관리 돕는 '전주시 금융아카데미' 강좌

고환율과 추가 하락 등 최근 유례없는 경제 위기 시대를 맞아 전문가의 시각으로 경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현명한 자산관리도 돕는 강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9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2 전주시 금융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에는 16년 동안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한 증권시장 전문가인 이종우 애널리스트가 강사로 초청돼 현재 시점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현명한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의 시간도 진행된다.

이종우 애널리스트는 대우경제연구소장을 거쳐 대우증권·한화증권·현대차증권·IBK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했으며, "기본에 충실한 주식

투자의 원칙' 등의 저서를 펴내고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IT(정보기술)버블 당시 거품 붕괴를 경고하거나 비관론이 쏟아질 때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등 경제전망에 대한 냉철한 경제진단과 명석한 전망, 현명한 투자 방법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강좌에 이어 오는 11월 22일 김형철(전)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초청해 중용과 투자이야기를 다룬 '투자철학이야기' 주제의 전주시 금융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금융아카데미에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은 유튜브 알리 쉬운 금융교육 플랫폼인 '전주금융생활' 채널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jinh.nonghyup.com

전주농협

어울진

만남은 Good 농산물

물 좋고 공기 좋은 우리 고장 전주에서 생산된 대표특산물,

복숭아, 배, 호박, 미나리, 장미

전주농협에서 맛과 신선함을 책임지고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농민이 애국자입니다. 우리 농산물 최고!!

농민과 도시의 상생정신을 지키는 - **전주농업협동조합**